

영광을 위한 십자가, 한 알의 밀이 되어
The Cross for Glory: Becoming a grain of wheat



The Blessing Church

2318 Whitesburg Dr, Huntsville, AL 35801

Email: TheBlessingChurch25@gmail.com

Homepage: TheBlessingChurch25.com

[YouTube.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youtube.com/@TheBlessingChurch25)

[Facebook.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facebook.com/TheBlessingChurch25)

[Instagram.com/TheBlessingChurch.25](https://www.instagram.com/TheBlessingChurch.25)

The Blessing Church

Dr. Jaeyun Lee

요한복음 12장 20-26절에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성공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을 영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낮아지는 것'을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깨어짐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왔고, 그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때였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비추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죽고 있는가?”

우리는 '축복'과 '영광'을 갈망하면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 필요한 나의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야 옆의 지체들이 살아납니다.
내 고집이 깨져야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밀알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방문 앞에서 죽음의 때를 선포하신 이유, 그 죽음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때, 2025년도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썩어지는 밀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희생, 낮아짐, 포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에
놀라운 생명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러지는 가장 밝은 영광이 됩니다.

In John 12:20-26, a very important turning point in **redemptive history** appears. When the Greeks came to seek Jesus, outwardly it appeared to be a "moment of success" where Jesus' name was finally expanding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Jewish nation. However, Jesus sai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And He continu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The world calls "rising higher" glory.
But Jesus called "descending lower" glory.
The world says ruling by power is victory.

But Jesus taught that giving oneself up is victory.

Jesus Himself became that single grain of wheat. He laid down the glory of the heavenly throne and chose the Cross, not a royal seat. Life flowed out from that **holy brokenness**, and that moment of death was precisely when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was fully revealed. As we conclude the year 2025, I hope the Holy Spirit will quietly shine His light upon us.

“Am I still remaining as a single grain,
or am I falling to the ground and dying?”

We long for "blessing" and "glory"... yet we want to avoid "**my cross**" which is necessary for that grace to flow. However...

Only when I die is the Jesus within me revealed. Only when my pride is broken do the brothers and sisters beside me live. Only when my stubbornness is shattered is the fruit of the Spirit borne in the community. When I die on the cross, God's life begins in that very spot.

The death of the grain is not a tragedy.
It is God's method of creating life.
And it is God's wisdom that opens the path of the Gospel toward the **nations**. The reason Jesus proclaimed the hour of death before the visit of the Greeks is that through His death, the way for the nations to return to the Lord was opened.

At this time facing Christmas, passing through the final moments of 2025, I hope we gaze into the depths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I urge you to choose the path of the grain that quietly decays in unseen places. The "sacrifice, lowliness, and surrender" that seem small will become a sprout of God's Kingdom for someone. And please believe firmly:

**In that very spot where I have died,
God will sprout amazing life in the new land of 2026.**

Your life walking the path of the Cross becomes the brightest glory offered to God.